



자연과 동화가 하나 되는 원주 동화마을수목원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 일상에 지친 사람들, 마음을 온전히 내보일 수 없는 생활 속에 자연이라는 두 글자는 안도와 편안함, 정화(淨化)와 미소를 준다. 현대인에게 진정한 힐링은 바로 자연이 아닐까 싶다. 도심에서 멀리 않은 숲의 세상, 동심과 자연을 함께 만날 수 있는 동화마을, 원주 동화마을수목원은 자연이다. 동화마을수목원은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명봉산 일대 147ha 규모로, 중점시설은 24ha다.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돼 2011년부터 총사업비 65억원을 투입해 조성한 수목원으로 원주시 최초 공립수목원이다. 주요 시설로는 방문자 센터, 안내소 외에 향기원, 벨리원, 전시 온실과 증식 온실, 소나무원, 약용 식물원, 국화과초본원, 생태 관찰로, 잔디광장 등이 있다. 2016년부터 소나무과, 국화과, 장미과 식물 및 야광나무, 개회나무 등 1천132종, 13만본이 넘는 다양한 수종의 수목과 식물을 심었고, 빗물 저류조를 활용한 생태연못 등 작지만 볼거리가 풍성한 아담한

수목원이다. 향기원에는 다양한 종류의 허브와 약용식물, 식용식물 등이 식재돼 시각과 후각으로 자극하는 오감 만족 힐링 공간이다. 벨리원에는 블루베리, 아로니아, 뽕나무 등 다양한 종류의 베리류를 심어 열매를 볼 수 있도록 했다. 전시 온실은 석부작, 소사나무, 명자나무 등 화려한 분재들이 다양하다. 동화마을수목원은 현재 봄꽃으로 데모르(오스테오스펠름), 꽃양귀비, 페츄니아, 웨이브페츄니아, 리빙스턴데이지 등 아름다운 계절 꽃이 수목원을 찾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다. 공조팝나무, 설구화, 말채나무, 삼색버드나무 등 수목의 만개한 꽃이 수목원을 한층 아름답게 만들고 있다. 수목원을 둘러싼 3종류의 순환형 둘레길도 조성됐다. 첫 번째 코스는 수목원 상단부에 위치한 명봉산 정상과 능선을 따라 한 바퀴 돌아서 내려오는 총 8km 코스로 4시간이 소요된다. 두 번째 코스는 산 중턱에 조성한 총 6km 둘레길로 가볍게 운동하기 좋으며 2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봄철 진달래를 많이 볼 수 있어



진달래길로 불린다. 세 번째 코스는 기존 임도를 활용한 둘레길로 총 3.2km에 1시간 정도 소요된다. 세 코스 중에서 가장 걷기 편한 길이며 자작나무가 많아 자작나무길이라 부르기도 한다. 동화마을수목원은 문막읍 동화리 마을에 위치해 동화마을수목원으로 이름을 정했으나 정작 수목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마치 어린이 동화책 속에 들어온 듯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 마을 이름과 동화책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뒀다. 어린이 동화마을에 알맞게 수목원 입구에는 두 명의 요정이 수목원 방문을 환영하고, 백설공주와 일곱난장이, 다람쥐, 벌, 무당벌레 등의 귀엽고 아기자기한 조형물들이 방문객에게 사랑의 미소를 건넨다. 수목원 곳곳에 쉼터와 벤치를 설치해 어느 곳에서나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주변에는 수목원 직원이 직접 그린 그림과 캘리그래피가 마음의 안식을 준다. 길옆 나무에 붙어있는 앙증맞은 새집에선 새들이 쉬어가기도 한다. 수목원은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행사도 운영한다. 지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잠시 쉬고 있지만, 명상 숲과 숲 해설, 숲 치유 프로그램은 원주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다. 개장은 4~10월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절기인 11~3월에는 오후 5시까지 문을 연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매주 월요일은 쉰다. 수목원은 9월 정식 개장에 앞서 계곡부를 활용한 암석원과 습지생태원을 보완하고 벽천분수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늘려가고 있으며, 정식 개장되면 동화 속 비밀의 숲에서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축제의 공간으로 변모할 예정이다. ❶



소소한 즐거움이 넘치는 원주 그래, 오늘은 원주로 떠나자



동화마을수목원은

원주시에 최초로 설립된 공립수목원으로,
1,132종의 나무와 식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목원 숲을 거닐며 온전한 자연을 느끼고
힐링할 수 있는 시민 여가 공간입니다.

